

2026년 6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KNN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06.24(수)	KNN 대회의실	12명 /13명	9	0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강의구, 이준홍, 강문기, 강정규, 김덕열, 김정환, 김홍준, 복성경, 송수진, 송연익, 이철희, 임수정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이오상(대표이사), 김호진(경영본부장), 전성호(제작편성본부장), 추종탁(뉴미디어제작본부장), 김성기(보도국장), 안의섭(기술국장), 국주호(영상제작국장), 허민경(제작국장), 이근호(편성라디오국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2	2	0	0	0	0	4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4	0	0	4

*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수용비율 기준으로 평가(활용비율 0%는 0점)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시청자불만)	지역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음 최근 남구에서 발생한 고령자 교통사고 보도는 사건 개요는 충실히 보도 되었지만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후속 보도는 이뤄지지 않았음...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만이 사고를 막는 최선의 방법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고령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지 후속 보도가 필요해 보임	조치내용없음	'26.6월
교양 (시청자불만)	<부산 환적항의 미래를 열다>는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지역 아젠다와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시의성을 잘 반영한 프로그램이었음 ai를 활용한 첨단 무인 항만으로 세계최대 환적항으로 발돋움 해야하는 부산항의 미래를 잘 제시했음 다만 북극항로 출발지로서 부산항을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북극항로에 대한 다른 나라의 움직임등도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조치내용없음	'26.6월
보도 (시청자불만)	부산 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녹조문제를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가 취재한 영상이 인상깊었음 그러나 현장 중계식의 보도가 아쉬움 안전한 식수원 확보는 지역민의 생명과도 관계 있는 만큼 지속적이 보도가 필요해 보임 식수원 다변화에 대한 경남 지역의 입장과 대안을 함께 제시해주기 바람	조치내용없음	'26.6월
교양 (시청자불만)	<탐 클래스>출연자 선정에 지역성을 반영해 주기 바람 프로그램 기획의도가 한 분야에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의 성공담과 실패 극복 성공비결 등을 공유하는 내용인데 부산 경남 출연자는 별로 없고 주로 경기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만 섭외됨 지역에도 방송에 소개될 만한 분들이 많은데 지역방송인 만큼 우리 지역 사람들이 출연해 성공담을 방송했으면 좋겠음	조치내용없음	'26.6월

총 건수	4건
------	----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26.6~2026.6)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화서영	2002.12.24	프리랜서	임기만료	1달
최보경	2006.07.15	대학생	임기만료	1달
김서연	2006.08.03	대학생	임기만료	1달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 전문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구분	성명	전 · 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성별/생년 (총선임기간)
위원장	강의구	(현)부산영사단장	(사)한국해양산업협회	경제단체	남/1946 (20.03.01.~27.03.26)
부위원장	이준홍	세무회계 해인 대표 세무사	부산지방세무사회	경제단체	남/1965 (22.01.01.~27.03.26)
위원	강문기	한국기술사회 부회장	한국기술사회	과학기술 단체	남/1965 (25.03.26~27.03.26)
위원	강정규	동아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동의대학교	학부모단체	남/1967 (23.01.01.~27.03.26)
위원	김덕열	(사)부산청년정책연구원 이사장	(사)부산방송영상포럼	청소년 단체	남/1980 (25.03.26~27.03.26)
위원	김정환	부산 YWCA 사무총장	KNN 노동조합	노동단체	여/1964 (25.03.26~27.03.26)
위원	김홍준	(주)무지개약품 대표이사	부산울산경남 의약품유통협회	경제단체	남/1987 (25.03.26~27.03.26)
위원	복성경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KNN 노동조합	노동단체	여/1971 (25.03.26~27.03.26)
위원	송수진	부산디지털대학교 교수	부산디지털대학교	학부모단체	여/1990 (25.03.26~27.03.26)
위원	송연익	(주)에스엠홀딩스 대표이사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남/1969 (23.01.01.~27.03.26)
위원	이덕환	법무법인 나침반 대표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남/1974 (25.03.26~27.03.26)
위원	이철희	단디병원 병원장	양산시의사회	과학기술 단체	남/1978 (22.01.01.~27.03.26)
위원	임수정	사단법인 자연의 권리찾기 조직위원	(사)자연의 권리찾기	소비자보호단체	여/1973 (23.01.01.~27.03.26)
변 동 사 항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시청자 불만)	지역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음 최근 남구에서 발생한 고령자 교통사고 보도는 사건 개요는 충실히 보도 되었지만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후속 보도는 이뤄지지 않았음..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만이 사고를 막는 최선의 방법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고령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지 후속 보도가 필요해 보임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후속 보도를 준비하겠음	○		
교양 (시청자 불만)	<부산 환적항의 미래를 열다>는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지역 아젠다와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시의성을 잘 반영한 프로그램이었음 ai를 활용한 첨단 무인 항만으로 세계최대 환적항으로 발돋움 해야하는 부산항의 미래를 잘 제시했음 다만 북극항로 출발지로서 부산항을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북극항로에 대한 다른 나라의 움직임등도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글로벌 해양수도로 발돋움 하기 위해 부산항이 첨단 ai 스마트 항구가 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올 8월 팬스타 북극항로 개척 시험선이 출항할 때 동행 취재해 북극항로의 중요성과 가치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뉴스 등을 제작하겠음	○		
보도 (시청자 불만)	부산 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녹조문제를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영상이 인상깊었음 그러나 현장 중계식의 보도가 아쉬움 안전한 식수원 확보는 지역민의 생명과도 관계 있는 만큼 지속적이 보도가 필요해 보임 식수원 다변화에 대한 경남 지역의 입장과 대안을 함께 제시해주시기 바람	녹조 현장을 중심으로 취재하다 보니 중계 위주의 보도가 되었다는 부분 인정함 식수원 다변화 정책에 대한 경남 지역 지자체 환경부 그리고 부산시 대응 등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여론을 형성하는 보도를 준비하겠음	○		
교양 (시청자 불만)	<탐 클래스>출연자 선정에 지역성을 반영해 주기 바람 프로그램 기획의도가 한 분야에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의 성공담과 실패 극복 성공비결 등을 공유하는 내용인데 부산 경남 출연자는 별로 없고 주로 경기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만 섭외됨 지역에도 방송에 소개될 만한 분들이 많은데 지역방송인 만큼 우리 지역 사람들이 출연해 성공담을 방송했으면 좋겠음	<탐 클래스> 지역9개 민방 공동제작 프로그램이고 현재 제작사는 강원민방임을 설명, 특정 지역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섭외를 하다 보니 주로 수도권 지역 인사들이 많이 출연한 경향이 있음 섭외시 각지역을 안배해 출연 인사를 다양화 하도록 제작사에 요구하겠음	○		